

대한민국 식량 공급 · 식품 안전을 지키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재단 5차년도 연보

2014년 1월 - 12월



[목 차]

· 이사장 인사말	02
· 임원 및 직원 명단	04
· 5차년도 사업내용	
- 이사회 개최	06
- 연구사업	06
- 학술회의	07
- 저술 출판사업	09
-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진행사항	10
· 5차년도 재무보고(2014년 12월 31일 기준)	13
· 2015년도 사업계획	14
· 2015년도 예산	16
· 이사장 칼럼	17

■■■ 이사장 인사말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을 설립한지 어언 5년이 경과했고 매년 한 해 동안 행한 일들을 정리해 보면서 무엇보다 먼저 재단 이사님들의 한결같은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리며 후원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에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좁은 국토에 세계 3위의 인구밀도로 인해 식량문제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지뢰와 같은 중요 사안이나 하루 세끼 불편 없이 먹고살다 보면 그 심각성을 잊게 되는 과제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곡물기준으로 23% 대로 떨어졌고 전체 식품으로는 40%대밖에 자급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나 별로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은 쌀 시장 개방 협상이 시작되는 되는 해만큼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하기를 온 국민이 바라

고 있습니다. 우리 식품산업도 식량공급의 주체로서 책임이 막중해 지고 있습니다.

재단은 2014년 3월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을 출판하여 정부관계자와 국회의원 전원에게 기증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전체 식량자급률 60%, 쌀의 완전 자급, 식용콩의 50% 자급, 조사료 완전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단은 2014년도 연구과제로 ‘식품 가격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농산물 가격 관련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가공식품의 가격정책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지원을 받아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현행 나트륨 섭취권장량에 대한 재검토와 무리한 저감화운동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단은 글로벌 기후변화시대의 식량교역과 식품 가격정책에 대해 꾸준히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생명공학 기술의 실용화와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에는 ‘창조농업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한국소비자연맹,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5차 년도에 시작한 식량안보시리즈 제1권 ‘나트륨, 건강 그리고 맛’에 이어 2015년에는 제2권 ‘건강지킴이 보리의 재발견’ (2월), 제3권 ‘GMO 바로알기’ (4월), 제4권 ‘쌀의 혁명’ (6월) 등 국민 교육을 위한 서적을 계속적으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 나라의 식량문제를 걱정하고 개선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식품산업 분야가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본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사님과 고문님, 후원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재단의 고문님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고 전 중운 삼양식품 명예회장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2015년 3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 철 호

전중운 회장님의 소견을 애도함

전중운 회장님의 별세 소식을 접하면서 슬픈 마음을 가눌 수 없다. 나에게 전중운 회장님은 한국 식량안보연구재단의 고문님으로 더 가깝게 느껴지는 분이다.

5년 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을 설립할 당시 나는 우리나라 식품대기업 회장님들께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일에 식품산업이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 편지를 받고 전회장님은 직접 전화를 걸어 말씀하셨다. "이 교수, 나는 왜 정치대와 6.25를 거치면서 배고픈 것을 경험한 사람이야. 오늘 젊은이들이 배고픈 걸 모르고 음식이 귀한 줄 모르니 참으로 걱정이네. 이 교수가 이 일에 앞장서서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는데 노력해 주게."

이 말씀에 감동돼 전회장님을

사무실로 찾아뵈었다. 90이 넘는 연세에 곳곳한 자세로 맞으시면서 일본에서 출판된 식량안보 관련 서적 복사본 다섯 권을 책상위에 준비해 놓으셨다가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해 두신 재단후원금을 주셨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발전한 것은 이분 같은 훌륭한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회장님의 이 고매한 뜻을 받들어 반드시 이 나라의 식량정책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일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회장님은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나 이 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고통을 받으신 분이다.

나는 1997년 '식품위생사전'에서 1권을 내면서 삼양라면의 무지

파동을 심도 있게 다뤘다. 검찰의 무지가 저지른 불행한 사건으로 오랜 법정공방 끝에 삼양식품이 승소했으나 회사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다.

1970~80년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식품기업으로 국민의 허기진 배를 채워 주었던 삼양라면이 터무니없는 수난을 겪게 된 것이다.

전회장님은 대관령에 대규모 목장을 건설해 우리나라 산지농업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다. 그러나 2년 전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대관령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던 수 백 마리의 젖소를 생매장해야 하는 비운을 맞았다.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추진한 정부의 지나친 살처분 정책으로 가족처럼 애지중지하시던 소들을 잃은 것이다. 그 충격이 너무 커 끝내 유명을 달리하

셨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다. 전회장님의 고매한 인격과 높은 뜻을 우리 후진들이 물려받아 이 사회를 좀 더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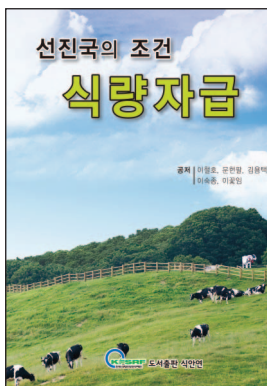
"우리 사회를 대신해서 회장님께서 무릎 꿇어 사죄합니다. 못다 한 신 뜻을 우리 후진들에게 남겨두시고 이제 홀홀 가벼우신 몸으로 평화로운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시옵소서."



이철호
〈식량안보연구
재단 이사장〉

(식품음료신문 7월 21일자)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 도서출판 식안연 (2014)



‘쌀이 남아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곡물자급률은 22%대로 급락하고 있으며 국민은 식량을 아까운줄 모르고 낭비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모두 식량을 자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식량의 반도 자급하지 못하면서 GDP 2만 불이 넘는 선진국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재단은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이 연구를 시작했다.

이 책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전체 식량자급률 60%, 쌀의 완전 자급, 식용콩의 50% 자급, 조사료 완전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 하고 있다.

- 저자 : 이철호, 문헌팔, 김용택, 이숙중, 이꽃임
- 발행 : 2014년 3월 31일
- 정가 : 15,000원

1. 임원 및 직원 명단 ■■■

【고 문】



권태완 인제대학교 명예교수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식품과학 박사
KIST 식량과학연구실장, 부원장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초대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콩세계과학관 건립추진위원장

【이사장】



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덴마크왕립수의농과대학 식품학 박사
미국 MIT공과대학 연구원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고문관

【이 사】



이현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미네소타대학교 화학공학 박사
미네소타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대통령실 과학기술특별보좌관



문성환 삼양제넥스 대표이사 사장

헬싱키대학교대학원 경영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삼양제넥스 대표이사 사장
휴비스 대표이사 사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경영협의회 회장
삼양사 경영기획실장 부사장



전중운 삼양식품 명예회장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삼양식품 대표이사 회장
삼양축산 대표이사 회장
삼양식품 명예회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발효화학 석사
서울대학교 미생물학 학사
CJ제일제당 대표이사
CJ제일제당 총괄 부사장
대상 바이오사업총괄 중앙연구소장 전무
대상 제약사업본부장 이사



김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사
제18, 19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박관희 대선제분(주) 대표이사 회장

펜실베이니아대학교대학원 석사
서울상공회의소 제20대 대의원선출
경북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대선제분 대표이사 회장
한국쌀가공식품협회장

【이 사】



명형섭 대상(주) 대표이사 사장

고려대학교 농화학과 학사
대상 대표이사 사장
대상 식품사업총괄 전무
대상 식품사업총괄 상무
대상 전문당사업본부 서울공장장
미원 기술연구소

【재단 사무국】



김미경 사무간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



박 준 (주)농심 대표이사 사장

중앙대학교 사회사업학과 학사
농심 대표이사 사장
농심 국제사업총괄 사장
농심 국제담당 이사
농심 미국지사 사장

【재단 연구부】



이숙중 박사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이학박사
고려대학교 부설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연구원



노동환 한국제분(주) 대표이사

영남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한국제분, 동아제분 이사
동아제분 상무
한국제분(주) 대표이사

【출판부】



김유원 사장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도서출판 유림문화사 설립
한국실업검정교과서 이사
미국도서관협회총회 한국대표
한국청소년도서협의회 이사
도서출판 유림문화사 대표(현재)

【감 사】



문현팔 한국종자포럼 이사장

캘리포니아대학교대학원 유전학 박사
농촌진흥청 차장
한림원 식량안보과학특별위원장
한국종자포럼 이사장
북방농업연구소 소장



박현진 고려대학교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 식품공학과 박사
고려대 식품공학과 석사
미국 클렘슨대학교 포장공학과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2. 5차년도 사업내용 ■■■

2-1. 이사회 개최

(1) 1차 정기이사회



- * 일 시 : 2014년 4월 3일 오전 7:30
- * 장 소 : 조선포텔, The Ninth Gate Grille
- * 참 석 자 : 이철호, 김철하, 명형섭, 박관희, 박 준, 최병순, 문현팔, 박현진
- * 회의내용 : 2013년 업무·보고 및 결산보고, 2014년 사업계획 심의, 2014년 운영예산 심의, 재단 이사 김철하, 문성환, 명형섭, 박준 연임 동의로 가결

(2) 2차 정기이사회



- * 일 시 : 2014년 11월 18일 오전 7 : 30
- * 장 소 : 조선포텔, The Ninth Gate Grill
- * 참 석 자 : 이철호, 김철하, 명형섭, 문성환, 박관희, 박 준, 노동환, 문현팔, 박현진
- * 회의내용 : 2014년 업무보고 및 가결산보고, 2015년 사업계획 심의, 2015년 운영예산 심의, 재단연구과제 심의

2-2. 연구사업

(1) 2014년도 재단 연구과제

가. 지정과제 - 식품 가격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 연구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연구책임자 : 이철호 교수(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공동연구자 : 박현진 교수(고려대 식품공학부), 안병일 교수(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 연구비 : 3,000만원(박현진, 안병일 각 1,000만원)

* 진행사항 : 제7차, 제8차 간담회 실시, 제13회 식량안보세미나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교역과 식품가격 정책”을 10월 31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미국곡물협회 후원)

(2) 외부 수탁과제

가. 한국식품산업협회 과제 -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 연구기간 : 2014년 9월 ~ 12월 (4개월)

* 연구수행기관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연구비 : 1,500만원 (한국식품산업협회)

* 연구자 : 이철호 교수, 이숙중 박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진행사항 : 제12회 식량안보세미나 “나트륨줄이기운동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9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
나트륨, 맛 그리고 건강’ 책자 발간(초판 2,000부, 재판 1,000부)

2-3. 학술회의

(1) 제12회 식량안보세미나 - 나트륨줄이기운동의 성과와 발전 방향



* 일시 : 2014년 9월 24일(수) 14:00~17:30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산업협회

* 발표자 : 권오상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채수완 교수(전북대학교의과대학), 이숙중 박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토론자 : 이철호, 김연숙, 김정년, 김초일, 박건영, 신동화, 정윤희, 최낙언, 함경식

* 참석인원 : 100여 명, 자료집 300부 제작 배포

(2) 제13회 식량안보세미나 –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교역과 식품가격 정책



- * 일시 : 2014년 10월 31일(금) 13:30~18:30
- * 장소 : 롯데호텔 37층 Garnet Suite
-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 * 후원 : 미국곡물협회
- * 발표자 : Dr. Michael J. Puma (Columbia University, USA),
Mr. Gary C. Martin (North American Export Grain Association),
안병일 교수(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고정아 교수(고려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 * 토론자 : 이철호, 김창길, 김해영, 박수철, 배호열, 황성혁
- * 참석인원 : 80여 명, 자료집 200부 제작 배포

(3) 식량안보 간담회

가. 제7차 식량안보간담회

- * 주제 : 우리나라 양곡 가격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안
- * 일시 : 2014. 4. 15. 10:00~13:00
- * 발표자 : 안병일 교수(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 * 참석자 : 박현진(고려대), 임송수(고려대), 위남량(농협), 송광현(쌀가공식품협회), 홍주식(농유공),
성명환(농경연), 한석호(농경연)
- * 장소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 동관 412호



제8차 식량안보간담회

- * 주제 : 가공식품의 가격 변동 요인과 현황
- * 일시 : 2014. 5. 20. 10:00~13:00
- * 발표자 : 박현진 교수(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 * 참석자 : 신동화(전북대), 최지현(농경연), 최병순(한국제분), 박형록((주)농심), 이광승((주)대성),
이균호(식품음료신문), 송광현(쌀가공식품협회), 이기식(한국식품산업협회), 안병일(고려대)
- * 장소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 동관 412호



2-4. 저술 출판사업

(1) 단행본 (도서출판 식안연)

1) 선진국의 조건 - 식량자급



- 저자 : 이철호, 문헌팔, 김용택, 이숙중, 이꽃임
- 출판일 : 2014년 3월 31일
- 정가 : 15,000원
- 출판부수 : 1,800부

* 출판기념회 - 2014년 4월 10일 고려대 교우회관





2) 나트륨, 건강 그리고 맛 (식량안보 시리즈 제1권)



- 저자 : 이철호, 이숙중
- 출판일 : 2014년 11월 17일
- 정가 : 8,000원
- 출판부수 : 2,000부(초판), 1,000부(재판)

(2) 인터넷 월간 뉴스레터 발간

- 1) 뉴스레터 43호(2014년 1월) ~ 54호(2014년 12월) 발간, 홈페이지 게시
- 2) E-mail 메일링 리스트 2,400여 명에게 발송

(3) 홈페이지 관리운영

1) 홈페이지 업로드 상황 (2014년 1월~12월)

- 뉴스기사 351건, 논문 9건, 보고서 13건, 이사장칼럼 44건, 뉴스레터 12건, 세미나 자료집 파일 2건, 갤러리 34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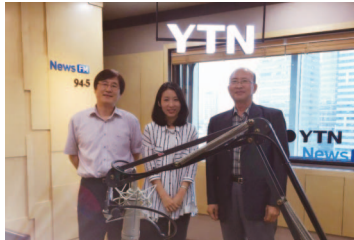
2-5.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진행사항

(1) 초청강연 및 토론 발표

- 6/25 '농업과 쌀가공산업의 연계방안 및 현안진단' 토론회 - 좌장
- 7/24 한림원탁토론회 '국내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대안은?' - 좌장
- 8/29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조사기술 활용 심포지엄' - 좌장
- 9/30 '국내 곡물자급률 반등 가능한가?' 국회 토론회 - 좌장

(2) TV 출연 및 인터뷰

- 4/14 EBS '다큐프라임' - 아시아음식의 비밀
- 8/08 YTN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 GMO 완전표시제 논란
- 8/24 KBS '뉴스토크' - '임산부의 참치 섭취 & 사카린 사용 확대'
- 9/18 tvN '가상다큐' - 농부가 사라졌다



(3) 신문 잡지 기고문

- 1/10 식량주권 중요성과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 보건신문
- 1/13 2년 전 퍼낸 소설 장성택 사태 예언 "남북통일 대비 쌀 120만t 비축해야" - 주간조선
- 1/21 사대부 식시오관(士大夫 食時五觀) - 식품외식경제
- 1/21 통일의 조건 - CNB 저널
- 2/07 통일을 대비한 식량 안보정책 제언 - 한국작물보호협회
- 2/18 농업인의 시야를 넓히자 - 농수축산신문
- 2/24 선부른 동반성장, 한식세계화와 식량안보에 적신호 - CNB저널
- 3/06 홍선표의 식사지침 - 식품외식경제
- 3/25 나트륨, 건강 그리고 맛 - CNB 저널
- 3/26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 코리아정책저널
- 3/26 한국인의 걱정 나트륨 섭취량 - 식품외식경제
- 4/07 쌀 시장 개방 준비되어 있나? - 농수축산신문
- 4/23 고혈압과 나트륨의 관계에 대한 논쟁 - 식품외식경제
- 4/23 나트륨 줄이기가 만든 '새로운 시장' - CNB 저널
- 5/27 의사들의 반란 - 식품외식경제
- 5/29 테크노크라트 시대를 열자 - CNB저널
- 6/26 안심(安心)사회가 되려면 - CNB저널
- 7/08 식품·외식산업의 정치력 - 식품외식경제
- 7/15 전중운 회장의 소천을 애도함 - 식품음료신문
- 7/24 식품사(食品史)에서 보는 한국고대사 - CNB저널
- 7/28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GMO - 중앙일보

- 7/29 식품저널 창간 17주년 축하
- 7/29 GM 식품 표시확대의 의미 - 식품외식경제
- 8/01 식량위기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 효도실버신문
- 8/12 통일과 한반도의 식량문제 - 통일로 가는 길
- 8/13 밀가루가 못 먹을 음식이라는 無知 - 조선일보
- 8/28 농민이 못사는 이유 - CNB저널
- 9/03 친환경농업의 허와 실 - 식품외식경제
- 9/26 푸드 패디즘의 시대 - CNB저널
- 10/24 나트륨 적정 섭취량에 대한 논란 - CNB 저널
- 10/27 소비자의 알권리- 식품표시제도의 함정 - 식품외식경제
- 10/27 남쪽 안에서의 '작은 통일' - 더 스쿠프
- 11/06 글루텐프리라고? - 식품외식경제
- 11/20 'GMO 악령' 식량안보 흔들다 - 더 스쿠프
- 11/24 한식의 미래, 세계화에서 길을 찾다 - 문화재 사랑
- 11/27 콩세계과학박물관 건립에 부쳐 - CNB저널
- 11/28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12/03 영화 '인터스텔라' 속 식량 에너지 문제 심층 분석! - SK에너지 블로그
- 12/08 수퍼푸드는 없다 - 식품외식경제
- 12/12 쌀 시장 전면 개방과 한국 쌀의 생존전략 - 월간불광(12월호)
- 12/15 콩과 한국인의 밥상 - CNB저널
- 12/15 통일쌀 한 톨에 숨은 경제학 - 더 스쿠프
- 12/15 식량낭비 줄이면 15조 비용 절감 - 대한급식신문

3. 5차 년도 재무보고 (2014.01.01 ~ 2014.12.31) ■■■

(단위: 원)

수입			지출		
항목	내용	금액	항목	금액	
후원금	대상	20,000,000	인건비	30,837,790	
	농심	20,000,000	복리후생비	1,100,000	
	CJ제일제당	20,000,000	회의비	10,265,049	
	삼양제넥스	20,000,000	통신비	519,470	
	한국제분	10,000,000	세금과 공과금	1,195,910	
	한국쌀가공식품협회	20,000,000	보험료	3,573,570	
			유인물비	7,064,120	
			홍보비	4,045,800	
	소계	110,000,000	운영비	11,375,502	
이자수익	이자&세금환급	3,243,573	임대료 (세미나)	957,000	
도서판매수익	식안연 발간책자	13,453,236	연구용역비	24,920,000	
연구과제	한국식품산업협회	15,000,000	소계	95,854,211	
전년이월		40,184,011	출판사업	도서 제작비	11,501,600
총 계		181,880,820		번역비	1,739,849
				배본료	5,602,344
				소계	18,843,793
총 계		181,880,820	총 계		114,698,004

수입	181,880,820
지출	114,698,004
잔액	67,182,816
출연금	100,000,000
적금	6,000,000
총잔액	173,182,816

4. 2015년도 사업계획

4-1. 연구사업

(1) 창조농업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 연구기간 : 2015년 1월 - 12월 (1년 과제)
- * 연구자 : 총괄책임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
 - 제1세부과제: 생명공학기술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구조
연구책임자: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 제2세부과제: 국내 농업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현황과 이의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주곤 교수
 - 제3세부과제: 생명공학기술의 활용을 통한 한국농업 발전모델과 이득 예측
연구책임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 곽상수 센터장
- * 연구비 : 2,000만원

4-2.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1) 제 14회 식량안보세미나

- * 제목 : 식품안전과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 * 일시 : 2015년 5월 중 (식품안전의 날 행사)
-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후원 : 식품안전상생협회(예정)
- * 장소 : 미정

(2) 제 15회 식량안보세미나

- * 제목 : 창조농업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 * 일시 : 2015년 10월 중
-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미래식품포럼(예정)
-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예정)
-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또는 국회

(3) 식량안보간담회

가. 제 9회 식량안보간담회

- * 제목 : 쌀수요창출을 위한 가공기술
- * 일시 : 2015년 3월 13일
- * 장소 : 재단사무실

나. 제 10회 식량안보간담회

- * 제목 : 농업생명공학기술의 이용
- * 일시 : 2015년 8월 중
- * 장소 : 수원 GM 작업 실용화 사업단

4-3. 출판사업

(1) 식량안보시리즈 제2권 - 건강지킴이 보리의 재발견

- * 저자 : 김영수, 최재성, 석호문, 신동화
- * 출판일 : 2015년 3월 15일
- * 정가 : 8,000원

(2) 식량안보시리즈 제3권 - GMO 바로알기

- * 저자 : 박수철, 김해영, 이철호
- * 출판예정일 : 2015년 4월
- * 정가 : 미정

(3) Korea Unification and Food Security

- *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영문판
- * 번역자 : Diana Evans(미국)
- * 출판예정일 : 2015년 4월
- * 정가 : 미정

(4) 콩세계과학관 도록

- * 발행처 : 경상북도 영주시
- * 편집 : 도서출판 식안연
- * 인쇄 : (주) 한림원
- * 출판예정일 : 2015년 4월
- * 제작비지원 : 경상북도 영주시

(5) 식량안보시리즈 제4권 - 쌀의 혁명

- * 저자 : 이숙중, 김미령, 이철호
- * 출판예정일 : 2015년 6월
- * 제작비지원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5. 2015년도 예산 ■■■

5-1. 재단 운영비

(단위: 원)

항목	세부내용		금액	합계
인건비	사무원		21,600,000	44,000,000
	연구원 및 기타 인건비		22,400,000	
연구사업 지원	창조농업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20,000,000	20,000,000
저술지원사업	단행본 출판	Korea Unification and Food Security	10,000,000	45,000,000
		콩세계과학박물관 도록	15,000,000	
		식량안보시리즈 2,3,4권	15,000,000	
	출판협동조합 관리비		5,000,000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식량안보세미나 2회		10,000,000	15,000,000
	식량안보 간담회 5회		5,000,000	
회의비/사무실 운영비	회의비(총회,이사회,자문위원회,기타)		3,000,000	23,000,000
	사무실 운영비(임대료,관리비,기타)		10,000,000	
	홍보, 광고비(홈페이지 운영, 기타)		5,000,000	
	후생복지비		3,000,000	
	활동비		2,000,000	
소계			147,000,000	

6. 이사장 칼럼 ■■■

쌀 시장 전면 개방과 한국 쌀의 생존전략 - 불광(12월호) [2014-12-12]



쌀시장 관세화 유예를 20년간 고집하던 우리 정부가 관세화 전면 개방을 선언 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됐을 때 한국은 다른 모든 농산물의 개방은 허용했지만 자국의 쌀시장을 지키고자 쌀 시장에 대한 개방을 유예했다. 그러나 우리는 쌀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틈에 걸리고 말았다.

쌀시장 전면 개방의 배경과 해외의 사례

그것이 최소시장접근방식(Minimum Market Access, MMA)이다. MMA는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이하 UR)에서 확립된 시장개방원칙 중 하나로,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 개방을 제한하면 관세화 개방을 이행할 때까지 국내소비량에 대한 일정 부분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한국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WTO가 시작되는 1995년에 국내 쌀 소비량의 1%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이어 매년 0.25%씩 추가해 2004년까지 의무수입량을 4%로 확대한다는 조건으로 쌀 시장 개방을 유예했다. 정부는 협정 당시 그 정도의 조건들은 감수하기로 하고 조약을 체결했고, 2004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농업협상을 거쳐 관세화 개방을 10년 더 유예하게 됐다. 20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의무수입량은 눈덩이처럼 불어 국내 소비량의 8%에 다다르게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수입량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협약의 내용 때문에 국산 쌀이 남아돌아도 매년 40만 톤 이상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고,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매년 0.25%씩 추가되어 앞으로는 더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해야 한다. 결국 선진국들이 쳐놓은 그물에 갇혀 백기를 든 것이다.

글로벌화 자유무역체로 들어가는 세계정세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8년여에 걸친 UR 협상 기간 동안 해외 선진국들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했다. 전통적으로 곡물 수입국이었던 영국

과 독일은 이기간 동안 곡물 수입국이었던 영국과 독일은 이기간 동안 곡물 자급을 실현했으며,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일에 거국적인 노력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0년 54%였던 곡물자급률이 1985년에는 48%, 1990년에 40%로 감소했고, UR 협상이 타결된 1995년에는 곡물자급률이 28%로 하락했다. UR 협상 8년 동안 농수산부 담당 국장이 7번 바뀌었으며 서기관과 사무관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공무원 순환보직제도의 틀에 갇혀 아무도 UR 협상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지 못해 대처 방안을 수립할 수 없었다. 우리는 20년 동안 쌀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을 가지고 논란을 거듭했을 뿐 쌀 시장 개방을 대비한 준비나 전략 개발에 소홀했다. 이제 더 이상 의무수입량을 버틸 수 없어 개방은 하지만 벼랑 끝에 와서 아무 대책없이 서 있는 우리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

가까운 예로 일본의 쌀 시장 개방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일본은 WTO출범 이후 4년 만에 더 이상 의무수입량을 늘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2000년부터 쌀의 관세화 수입을 단행했다. 그리고 WTO 규약을 철저히 연구하여 무려 1244%의 관세율을 받아냈다. 또한 관세화 이전에 쌀 품질에 관한 연구를 대대적으로 수행하여 일본쌀이 일본인에게 가장 맞는 최고의 쌀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교육 홍보함으로써 쌀 시장 개방을 준비했다.

일본종합식품연구소^(NFR)를 비롯한 농림성 산하연구소들은 벼의 육종에서부터 재배, 수확, 도정,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최고의 밥맛을 지닐 수 있는 쌀 생산유통시스템을 개발하고 표준화했다. 일본곡물검정협회는 식량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식미평가방법을 가지고 매년 전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식미평가를 실시하고 순위를 발표하여 쌀의 품질 등급과 가격 형성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으므로 일본은 WTO 출범 이후 5년 만에 쌀 시장을 개방하고 그들의 쌀 농업을 지켜낸 것이다.

쌀 시장 개방을 앞둔 우리의 현주소

쌀 시장 개방이 결정된 상황에서 우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면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로 쌀 시장 관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율을 충분히 높게 받아내는 것인데 관세율 협상에서 한국대표로 나서는 고위 공무원의 전문성과 협상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는 공무원 순환보직제 때문에 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고위 공무원을 키워 낼 수 없다. 농총경제연구원이나 민간 연구소에서 쌀 시장 개방을 대비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우겠지만 협상테이블에 앉는 협상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지 않는다면 협상에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말 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양허표 수정이능근 제출했지만 우리의 협상팀이 이를 관철시킬 확고한 전략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관세율 이외에도 의무수입쌀의 30%를 밥쌀용으로 사용하고 해외원조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수입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수입쌀 용도제한 규정들을 완화시키는 중차대한 일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밀고 당기는 협상테이블에서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이 분야의 전문 협상가가 우리 정부에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쌀 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국산 쌀과 수입산 쌀을 구분 유통하는 것은 국산 쌀을 지키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정부의 쌀 유통구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2009년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생산연도와 품질을 표시하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삭제하고 혼합유통을 허용하여 수입산 쌀이 유통될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았다. 정부는 밥쌀용 수입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매입자격을 완화하고 공매횟수를 확대했고, 그로 인해 2006년 43곳이던 공매업체수가 600여 업체로 늘어났다.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수입자 정보를 포장 앞면에 표기해야 했던 표시 규정도 이제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저액을 완화했다. 우리 농민이 쌀 시장 개방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때 정부는 개방 이후를 대비하기는 커녕 수입쌀의 물꼬를 트는데 몰두했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최근 국회에서 쌀의 혼합유통을 금지하는 법률들이 상

정되어 있다. 이 법은 쌀시장 개방 이전에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쌀 시장을 개방한 대만도 혼합유통의 탓에 걸려 엄청난 혼란을 겪은 후 최근 다시 쌀의 혼합유통을 금지시킨 사례가 있다.

우리 쌀의 생존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리 쌀이 개방화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궁극적으로 쌀의 품질을 가지고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언제가는 관세에 의해 수입쌀과 국산쌀의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쌀의 가격이 비슷해진다면 수입쌀보다 밥맛이 좋고 소비자 기호에 맞아야 국산 쌀을 구매할 것이다. 품질이 받쳐주지 않는 국산 쌀을 사먹으라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전 근대적인 발상일 뿐이다. 쌀의 품질과 식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품종, 재배방법, 저장 유통방법, 도정방법, 조리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에도 싸래기(새미)의 혼입율은 밥맛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싸래기가 많이 혼입되면 밥이 질어지고 탄력이 없고 맛이 없어진다. 우리나라는 도정 수율 기준을 72%로 하기 때문에 싸래기 혼입율이 5-15%를 차지한다. 5-15%는 대단히 높은 비율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완전립完全粒의 쌀 유통을 기본으로 하며 싸래기 혼입비율을 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쌀의 싸래기 혼입비율을 5%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개방화 시대에 우리 쌀이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루속히 완전립 쌀 유통이 가능한 쌀 등급제 유통체계를 정비하고, 도정수율 기준을 68% 이하로 낮추는 대신 쌀값을 인상해 주는 고미가高米價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옛부터 조선미는 밥맛이 좋기로 명성이 자자했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에 왜구가 끊임없이 침범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조선미를 얻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한반도의 기후와 토질은 양질의 쌀이 생산되기에 아주 적합한 조건이다. 이 땅에서 재배되는 쌀의 품종 선별, 재배조건과 수확 도정 기술, 저장 유통기술을 최적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쌀을 생산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제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때까지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던 우리 쌀이 이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자리로 나선 것이다. 이 전쟁의 승패는 순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 코리아정책저널 (Vol.22) [2014-03-26]



한반도 통일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민족의 숙원과제이다. 최근 통일에 관한 여러 예측들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고 한반도 통일의 기운이 여러 면에서 감지되고 있으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나 진행과정은 우려스러운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북한정권이 붕괴되어 남한이 주도하는 급격한 통일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자칫 사리에 맞지 않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김병관 예비역 육군대장이 월간조선 1월호에 기고한 글처럼 북한의 급변사태에 북한에 진입할 수 있는 군대는 중국군이지 한국군이 아니다. 만약 북한 주민들이 남한보다 중국을 선호하면 우리는 북한을 영구히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남북한 신뢰프로세스가 여기에 꼭 맞는 말이다.

우리사회가 먼저 정의롭고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살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다.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 각 분야에서 남과 북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며 통일 후에는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연구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합의를 구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사정

북한은 경지면적과 식량작물 재배면적이 남한보다 각각 약 9% 및 41% 많으나, 기술적 낙후와 비료, 농약, 농기계, 에너지 등 농업생산 자재의 절대부족으로 그 생산량은 남한의 78%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무리한 산지 다락밭 개발 사업으로 산림의 32%가 황폐화되었으며 산사태와 토사 피해로 매년 엄청난 농경지 피해를 겪고 있다. 주체농법에 의한 중앙집권적 획일적인 지도체제와 협동농장 운영으로 농민의 생산의욕이 매우 낮다. 북한은 쌀과 옥수수를 거의 같은 양 생산하여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기관은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농촌진흥청 등이 있으나 서로 상이하며 신뢰도가 낮다.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1996년 북한의

식량수요량은 534만 톤이었으나 생산량은 300만 톤에 미치지 못해 수입식량 50만 톤, 원조식량 66만 톤을 합쳐도 120만 톤의 식량이 절대 부족하여 수십만 명이 아사하였다. 이러한 극심한 기아상태가 2003년까지 계속되었고 그 이후 식량 생산량이 400만 톤 수준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절대부족 상태에 있다. 2007년 이후에는 남한에서 보내던 연간 40만 톤의 쌀 지원도 끊겨 북한의 식량사정은 대단히 어렵다.

1955년부터 1972년까지 지속해온 북한의 식량배급 기준, 사무직 성인 1일 700g(년 256kg)은 3차에 걸친 감량 조치로 1992년에는 1일 492g(년 179kg)으로 줄었으며 1994년 이후에는 식량배급제도가 사실상 와해되었다. 2003년 남한에서 보낸 식량차관의 분배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1일 1인당 쌀 380g을 배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발표된 FAO/WFP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의하면 식량배급량 1일 406g에 근거하여 북한의 식품에너지 공급량을 1,578kcal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3000kcal를 상회하는 남한의 1인 1일 에너지 공급량의 절반에 불과하다.

2002년 UNICEF/WFP/북한당국이 공동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임산부의 1/3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저체중 어린이가 남포, 평양지역에 15%, 함경북도와 양강도에는 25%에 달하며,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stunting) 어린이의 비율이 남포시에 25%, 함경남도에는 48%에 이른다.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식량부족이 심각함을 나타낸다. 영양실조로 폐결핵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344명, 사망률은 25명으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다.

반면 남한은 영양과잉과 과체중으로 성인병이 만연하고 있으며, 식량의 낭비와 자급률 저하로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위험수준에 와 있다. 한반도 분단 65년의 결과가 보여주는 양 진영의 영양인류학적 차이는 세계적인 연구대상이 된다. 따라서 통일은 북한의 처참한 식량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남한의 식량자급률을 높여 한반도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통일을 대비한 식량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97년 '통일 대비 북한 농림업 부문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통일 시점에 따라 통일

〈표1〉 한반도 분단 65년의 영양인류학적 평가

	남 한	북 한
인구수(2012년)	5,000만명	2,442만명
(1945년 분단당시)*	1,600만명	900만명
인구증가율(2012/1945)	312%	271%
인구밀도(명/km ²)	497.1	197.4
농가인구(명)	2,962(2011년)	8,573(2008년)
농가인구 비율(%)	6.0%(2011년)	36.8(2008년)
1인 1일 평균 식품섭취량(g)	1,300	500(+)
에너지 섭취량(kcal)	2,000	1,600
에너지 구성비(탄수화물:단백질: 지방)	65:15:20	80:12:8
곡물자급률(%)	26	63
평균신장(cm, 남자/여자)	173/159	166/155
비만율(%)	33	-
결핵 발생률/사망률 (명, 인구 10만명당)	90/8	344/25
1인당 GDP(US\$)	23,679	506
정치체제	개방형 자유민주주의	폐쇄형 공산사회주의

(참조: 이철호 외,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2012), 통계청, *국가기록원)

원년의 양곡 부족량은 200만 톤(1월 통일) 또는 170만 톤(6월 통일)으로 추산하였으며, 통일 1차 년도에는 각각 230만 톤(1월 통일)과 250만 톤(6월 통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리나라 양곡관리법에는 쌀의 비축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양이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남한은 FAO가 권장하는 양곡 재고율 18~20%에 해당하는 약 70만 톤의 쌀을 매년 비축하고 있다. 이 양은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2~3개월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양으로, 일 년에 한번 수확하는 양곡의 특성을 감안할 때 통일 이후의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한반도 통일 후 식량안보와 식품산업 발전전략 연구'에서 2015년을 통일 시점으로 했을 때 약 15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남과 북의 식량 생산 현황과 잠재력을 비교하고, 식품산업의 역할과 식품 공급 능력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하여 통일 후 10년 동안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통일을 대비한 쌀 120만 톤 비축제도 법제화

통일을 대비하여 부족되는 양곡을 항상 비축해 두어야 한다. 이것은 북한 주민에게 남한이 보여줄 수 있는 신뢰 프로세스의 기초가 된다. 남한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식량을 준비해 두고 있다는 사실은 유사시 남한과의 통일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를 위하여 매년 60만 톤의 쌀을 2년간 비축하고 2년 후에는 쌀가공산업으로 방출하는 것을 법으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통일 미 비축을 법제화해야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지원

규제조항을 피할 수 있다. 비축 쌀 60만 톤 중 40만 톤은 WTO의 의무 수입쌀 전량을 비축용으로 사용하며 국내 생산 쌀 20만 톤을 추가 한다 이를 위한 정부 추가예산은 4,8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2013년도 외교통일예산의 11.8%에 해당한다.

저소득 영세민 복지향상을 위한 쌀쿠폰 무상지원 제도 실시

급격한 통일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비축양곡이 있다고 해서 북한주민에게 즉시 공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이 법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저소득 영세민에게 식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복지제도를 남한에서 먼저 시행해야 한다. 남한 국민의 7%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1인당 월 10kg의 쌀쿠폰을 무상 지원하여 쌀과 쌀가공제품(즉석밥, 떡, 쌀국수 등)을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가예산은 8,100억 원으로 2013년도 복지예산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해당될 것이며 이들은 한국 국민으로 자동적으로 쌀쿠폰 혜택을 받게 된다.

남한이 북한주민을 위하여 120만 톤의 쌀을 항상 비축해 두고 있고 통일이 되면 즉각 북한주민에게 공급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통일 메시지가 될 것이다.

쌀 생산 목표량 상향 조정

남한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다량의 사료곡물을 요구하는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쌀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여 곡물 수입량은 늘어나는데 쌀이 남아도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쌀 직불제, 논 소득 다양화 사업, 쌀 산업발전 5개년 계획 등 쌀의 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쌀 생산량은 2011년 422만 4천 톤, 2012년 400만 6천 톤으로 줄어 쌀 자급률이 83%로 떨어졌다. 쌀 자급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통일을 대비한 쌀 120톤 비축과 저소득층 쌀쿠폰 무상지원 제도, 그리고 쌀시장 개방을 대비한 고품질의 완전미 유통과 쌀 가공산업의 정책적 지원 등 적극적인 쌀 수요 창출 정책을 펴면 국산 쌀 년 60만 톤의 추가수요가 발생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년 480만 톤의 쌀이 생산되어야 한다. 2011년도 남한의 논 경지면적은 96만ha였

으며 같은 해 10a당 수량은 496kg으로 쌀 476만 톤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무계획적인 농지전용 허가 남발을 지양하고, 2011년도의 논 경지면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쌀 생산 목표량을 최소한 48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식용콩의 자급을 위한 계획 수립

한국인의 전통식단은 기본적으로 쌀밥과 콩반찬(콩나물, 두부, 된장찌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식량안보를 위해서 쌀과 식용 콩은 반드시 자급하여야 한다. 남한의 식용콩 수요량은 년 간 약 40만 톤으로 그 자급률이 1990년까지 60% 수준에 달했으나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하여 25%를 밑돌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식용콩 증산 의지의 부족과 저울관세할당물량(TRQ)으로 들어오는 수입콩의 국내 공급가격을 콩 증산과 연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산콩과 수입콩의 가격 차이에서 오는 이득을 콩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식용콩 자급을 위한 정책은 통일 이후 한반도 농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은 산악지대가 많고 밭 면적이 넓어 콩 생산의 적지이다. 남한의 콩 재배 면적은 7만 ha, 북한은 9만 ha 이다. 통일 후 한반도 전체 식용콩 수요량은 60만 톤으로 추정되며, 현재 북한의 옥수수밭 상당부분을 콩밭으로 전환하면 식용콩 6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46만 ha의 경작지 확보가 가능하다.

축산 사료 자급을 향상을 위한 정책

남한의 축산 조사료 생산량은 2009년 기준 437만 톤이며 수입량은 84만 톤으로 자급률이 84%이다. 배합사료 사용량은 1,665만 톤으로 수입 의존률이 75.6%이며, 사료 곡물 사용량은 875만 톤으로 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 남한의 식량자급률을 25% 이하로 끌어내리는 주요인이다. 현행 축산법을 개정하여 식량안보와 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업 허가제로 강화해야 한다. 유럽의 축산업 허가제를 참고하여 농지면적당 사육두수를 적절히 제한하고 조사료와 기초사료 자급을 일정 수준 의무화 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북한이 초식동물들을 위주로 하는 축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통일 후 스위스와 같은 아름다운 농촌을 한반도에 건설하려면 지금부터 남한에서 합리적인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

비상시 식량확보를 위한 식품산업의 육성

식품산업은 식량공급의 주체로서 그 기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남한의 농림어업 생산에 의한 식량자급률이 열량기준으로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식품산업이 식량공급의 반을 감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0년 남한의 식품산업규모는 133조원으로 농림어업의 51조원보다 2.3배에 달하고 있다. 통일 이후 한반도의 식량사정을 원활히 하려면 남북한의 균형잡힌 식품산업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남한의 식품가공공장 평균 가동률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22~50% 수준으로 통일 후 예상되는 식품수요 증가는 현재 남한의 가공시설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 북한의 주요 항구(남포, 신의주, 나진선봉, 청진, 홍남)와 생활 거점에 대한 물류 수송계획과 지역별 특산물 수집, 보관, 가공 시설의 설치 계획이 필요하다. 남한의 식품산업이 통일과 비상시의 식량 확보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저절로 우리에게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각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어렵게 성취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인 자유민주 통일이 되려면 북한 동포들이 보고 함께 살고 싶은 통일 시나리오가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이 되면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된다는 확신이 서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남한 사회가 제시해야 한다.

이제까지 비공개원칙으로 다루어온 통일 논의를 과감히 풀어서 온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식량문제 외에도 북한의 토지를 북한 농민에게 분배하는 원칙, 남한 국민의 북한내 토지 연고권 포기, 남한 자본의 북한내 부동산 투기 제한 등 북한주민들이 우려하는 통일 방해요소들을 제거하고 북한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의 통일을 향한 응집력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통일 준비가 가시적으로 온 국민의 합의하에 적시에 이루어 져야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존경받는 국민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www.foodsecurity.or.kr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공지사항 바로가기
제13회 식량안보세미나...

twitter

재단소개
한국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종합적인 식량안보정책의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DATA ROOM
각종 자료실 안내합니다.

동영상 갤러리
식량안보 관련 동영상 및 갤러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바로가기

상담/문의/전화
공급확산장 무엇이든 친절히 답변해드립니다.
02.929.2751
FAX 02.927.5201



[연구지원사업] more · 합동농업혁신을 위한 정책발전 연구 ... · 2015년 재단 연구과제 확립 · '식물기어질학' 개선을 위한 연구 ... · 2015년도 재단 연구과제 확립	[+세미나] more · 대한민국 농업혁신포럼 개최 ... · 고려대학교 삼육대학연주소 합동기초 ... · 한일농업협력포럼-국제농업혁신포럼 ... ·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식품연구회 ...	[+뉴스리더] more · 뉴스레터 제55호 ... · 뉴스레터 제55호 ... · 뉴스레터 제55호 ... · 뉴스레터 제55호 ...
[+출판사업] more · '건강 지킴이' 보리의 재발견 ... 출판 ... · '식량안보시리즈 제3권 'GMO 비로알기' ... · '건강 지킴이' 보리의 재발견 ... 출판 ... · '식량안보시리즈 제1권 - 나로부, 건강 ...	[+논문] more · 한반도 농업의 식량안보 - 한국과학기술 ... · A Meta-Analysis of the impacts of Ge... THE OXFORD HANDBOOK OF FOOD PERMENTA... Asian Functional Foods	[+뉴스기사] more · 가을을 배 '보리'로 알기 ... · 국내산 사육기알 아이들의 한우거린도 ... · 농업·식량과학기술이 합동농업혁신을 ... · 쌀겨서 건강기능 식품 추출법 개발...된...

동영상 more

갤러리 more